202205757 문수빈

주제 : 인간은 **존재가치를 알아야 살 수 있다.**

연출의도 : 삶의 의지도, 이유도 없는 인물 '성미'가 왠지 음침한 구멍을 만남으로써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작은 구멍이 성미의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다. 이를 통해 조그만 관심이라도 있으면 인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등장인물
성미(23,여) : 태생적으로 심한 피부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옆집남자(?,남)
집주인(50후반, 여)

S#1 성미의 원룸 내부, 낮

동요 '작은별' 천천히 흘러나오며 누런 벽지에 붙어진 야광 별스티커, 어설프게 치워져 구석에 몰려있는 쓰레기, 힐끔힐끔 굴러가는 눈 인서트로 보여진다. 벽을 향해 밥상을 차린 성미(23, 여) 민소매 차림에 삐쩍 마른 몸이 드러난다. 팔부터 얼굴 주변까지 황갈색의 아토피 자국과 뾰루지가 가득하다. 밥을 한 숟갈 퍼내더니 아차, 반쯤 덜어내곤 입을 작게벌려 오물오물 하관근육을 움직인다. 벌어지는 성미의 입 클로즈업샷 보여지다가, 벽지 달리인 된다. 블랙아웃 타이틀 인

<숨구멍>

S#2 동네슈퍼, 낮

뜨거운 태양빛에도 후드를 목 끝까지 올린 성미. 라면 한봉지와 과자 몇개를 품에 안는다. 멀리서 부채질을 하며 빤히 쳐다보는 슈퍼 아줌마. 애써 외면한 성미는 주머니를 뒤적여 동전을 웅큼 꺼낸다. 하나,둘, 세고 있는 성미의 모습을 보던 아줌마는 쯔, 혀를 차더니 입을 연다.

아줌마: (다정하지만 동정이 섞인 듯이) 딸~ 오늘은 그냥 가져가

성미는 동전을 세다 말고 고개를 쳐든다. 황당하다는 표정 (띠꺼운 표정)

성미: (빠르고 따박따박, 날이 선 말투) 아니요. 왜요?, 돈 낼거에요. 2500원 맞죠?

아줌마의 손을 억지로 잡고 동전을 전해주는데, 손등의 피부병이 드러난다. 질색하며 손을 빼내려는 아줌마. 실랑이를 벌이다 와르르 떨어지는 동전들. 잠깐 정적. 성미는 신경질적으로 물건만 챙겨 슈퍼를 나간다.

S#3 성미의 원룸 내부, 오후

야광 스티커가 붙여진 누런 벽지 아래 놓인 낮은 매트리스. 그 위에 성미가 랜덤채팅을 하고 있다. 쓸데 없는 말을 주고받다 영상통화를 하자는 채팅이 오고,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둘러보는 성미. 부셔 먹다 만 라면봉지와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가 보인다. 성미는 그나마 깔끔한 벽 구석으로 슬금슬금 이동해 통화를 건다. 긴 팔로 몸을 가리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감싼 뒤 눈만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눈다.

상대: 위험하게 혼자 자취하는 거야?

성미: 웅, 쓰리룸 인데 혼자 살아... (사이) 외롭다~

상대: (상기돼서) 외로우면 지금 갈까?

성미가 살짝 망설이다가 입을 열려던 때, 옆집에서 쿵! 벽 치는 소리가 들린다. 화들짝 놀란 성미가 핸드폰을 떨어트리고 덕분에 얼굴과 몸이 모두 드러난다.

상대: 아... 씨발련이 괜히 시간 버렸네

계속 들려오는 욕설에 다급하게 종료 버튼을 누르는 성미. 쿵쿵, 심장 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린다. 그 때 작게 들리는 조소, 성미가 주변을 두리번 댄다. 다시 고요해진 방 안. 성미는 불안한 눈빛으로 건조한 팔을 벅벅 긁고, 하얗게 올라온 각질들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S#4 성미의 원룸 내부, 밤

빗방울이 떨어지며 장면전환 된다(외부). 거센 빗소리가 들리는 어두운 방 안. 뒤척이며 자고 있는 성미. 몸을 뒤집자 손등과 벽이 맞닿는다. 깜짝 놀라 손을 떼는 성미. 덜 뜬 눈으로 창문 밖을 바라보고 불을 탁, 킨다. 맞닿았던 옷자락이 살짝 젖어 있다. 눅눅해져 울고 있는 벽지. 별 스티커 또한 달랑이며 떨어지려 한다. 스티커를 꾹꾹, 누르며 다시 붙이던 성미가 유독 축축한 부분을 의아하게 들여다본다. 곧 멈칫하더니 눈을 가까이 들이민다. 시점 샷으로 옆집 남성 보인다. 커다란 컴퓨터를 두들기는 뒷모습. 성미는 벽에 몸을 더 바싹, 붙인다. 서서히 축축해 지는 성미의 옷. 남성이 훽, 뒤돌자 황급히 눈을 떼고 침대에 누워 버린다. 또 다시 심장소리가 방 안을 울린다.

S#5 성미의 원룸 내부, 낮

얇은 천으로 벽을 가려 둔 성미. 그러나 얼굴은 하얗게 화장을 한 상태이다. 성미가 벽을 의식하며 쳐다보더니 핸드폰을 꺼내 '몰래 훔쳐보는 심리' '남자가 좋아할 때 하는 행동' 따위를 검색한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마음에 드는 답이 없었는 지 직접 글을 적기 시작한다.

'옆집 남자가 저를 훔쳐보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하던 성미가 백스페이스를 누르곤 다시 글을 적는다.

'옆집 남자가 이성 친구랑 떠들 때면 불쾌한 티를 내고 제가 뭘 하는지 사사건건 궁금해 해요. 이거 무슨 심리인가요?"
손톱을 뜯으며 답을 기다리는 성미. 나무라는 댓글은 가볍게 넘겨버리곤 마음에 드는 댓글만 드래그까지 쳐가며 읽는다.

'백퍼네ㅋㅋ. 나도 옆집에 예쁜 여자 좀 ~~ㅅㅂ~~'

얼굴에 웃음기가 머금어진 성미는 고개를 돌려 얇은 천을 쳐다본다. 시점 샷으로 벽과 가까워지는 카메라. 그 벽을 넘어가면 (화면전환) 옆집에서 흥분한듯 구멍을 쳐다보고 있는 남성.

S#6 성미의 원룸 내부, 오후

천이 떼어진 벽, 어설프게 깔끔해 진 방. 땀에 젖은 성미가 긴 팔을 천천히 벗는다. 아토피 자국이 서서히

드러나며 민소매 차림이 된 성미. 일부러 자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방을 닦는다. 팔이 간지러운지 긁으려다 가도, 입술을 꽉 깨물고 참는다. 벽 쪽을 청소하는 척, 구멍에 몸을 붙이는 성미. 그리곤 반응이 궁금한 지 몰래 눈을 들이민다. 그러나 옆집 남자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로 폰 게임을 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탄다고 생각한 성미는

주제 : (말정리중)

연출의도 : (말정리중)

등장인물

성미(23,여) : 태생적으로 심한 피부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옆집남자(?,남)
집주인(50후반, 여)

S#1 성미의 원룸 내부, 낮

동요 '작은별' 천천히 흘러나오며 누런 벽지에 붙어진 야광 별스티커, 어설프게 치워져 구석에 몰려있는 쓰레기, 힐끔힐끔 굴러가는 눈 인서트로 보여진다. 벽을 향해 밥상을 차린 성미(23, 여) 민소매 차림에 삐쩍 마른 몸이 드러난다. 팔부터 얼굴 주변까지 황갈색의 아토피 자국과 뾰루지가 가득하다. 밥을 한 숟갈 퍼내더니 아차, 반쯤 덜어내곤 입을 작게벌려 오물오물 하관근육을 움직인다. 벌어지는 성미의 입 클로즈업샷 보여지다가, 벽지 달리인 된다. 블랙아웃 타이틀 인

<숨구멍>

S#2 동네슈퍼, 낮

뜨거운 태양빛에도 후드를 목 끝까지 올린 성미. 라면 한봉지와 과자 몇개를 품에 안는다. 멀리서 부채질을 하며 빤히 쳐다보는 슈퍼 아줌마. 애써 외면한 성미는 주머니를 뒤적여 동전을 웅큼 꺼낸다. 하나,둘, 세고 있는 성미의 모습을 보던 아줌마는 쯔, 혀를 차더니 입을 연다.

아줌마: (다정하지만 동정이 섞인 듯이) 딸~ 오늘은 그냥 가져가

성미는 동전을 세다 말고 고개를 쳐든다. 황당하다는 표정 (띠꺼운 표정)

성미: (빠르고 따박따박, 날이 선 말투) 아니요. 왜요?, 돈 낼거에요. 2500원 맞죠?

아줌마의 손을 억지로 잡고 동전을 전해주는데, 손등의 피부병이 드러난다. 질색하며 손을 빼내려는 아줌마. 실랑이를 벌이다 와르르 떨어지는 동전들. 잠깐 정적. 성미는 신경질적으로 물건만 챙겨 슈퍼를 나간다.

S#3 성미의 원룸 내부, 오후

야광 스티커가 붙여진 누런 벽지 아래 놓인 낮은 매트리스. 그 위에 성미가 랜덤채팅을 하고 있다. 쓸데 없는 말을 주고받다 영상통화를 하자는 채팅이 오고,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둘러보는 성미. 부셔 먹다 만 라면봉지와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가 보인다. 성미는 그나마 깔끔한 벽 구석으로 슬금슬금 이동해 통화를 건다. 긴 팔로 몸을 가리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감싼 뒤 눈만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눈다.

상대: 위험하게 혼자 자취하는 거야?

성미: 웅, 쓰리룸 인데 혼자 살아... (사이) 외롭다~

상대: (상기돼서) 외로우면 지금 갈까?

성미가 살짝 망설이다가 입을 열려던 때, 옆집에서 쿵! 벽 치는 소리가 들린다. 화들짝 놀란 성미가 핸드폰을 떨어트리고 덕분에 얼굴과 몸이 모두 드러난다.

상대: 아... 씨발련이 괜히 시간 버렸네

계속 들려오는 욕설에 다급하게 종료 버튼을 누르는 성미. 쿵쿵, 심장 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린다. 그 때 작게 들리는 조소, 성미가 주변을 두리번 댄다. 다시 고요해진 방 안. 성미는 불안한 눈빛으로 건조한 팔을 벅벅 긁고, 하얗게 올라온 각질들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S#4 성미의 원룸 내부, 밤

빗방울이 떨어지며 장면전환 된다(외부). 거센 빗소리가 들리는 어두운 방 안. 뒤척이며 자고 있는 성미. 몸을 뒤집자 손등과 벽이 맞닿는다. 깜짝 놀라 손을 떼는 성미. 덜 뜬 눈으로 창문 밖을 바라보고 불을 탁, 킨다. 맞닿았던 옷자락이 살짝 젖어 있다. 눅눅해져 울고 있는 벽지. 별 스티커 또한 달랑이며 떨어지려 한다. 스티커를 꾹꾹, 누르며 다시 붙이던 성미가 유독 축축한 부분을 의아하게 들여다본다. 곧 멈칫하더니 눈을 가까이 들이민다. 시점 샷으로 옆집 남성 보인다. 커다란 컴퓨터를 두들기는 뒷모습. 성미는 벽에 몸을 더 바싹, 붙인다. 서서히 축축해 지는 성미의 옷. 남성이 휙, 뒤돌자 황급히 눈을 떼고 침대에 누워 버린다. 또 다시 심장소리가 방 안을 울린다.

S#5 성미의 원룸 내부, 낮

얇은 천으로 벽을 가려 둔 성미. 그러나 얼굴은 하얗게 화장을 한 상태이다. 성미가 벽을 의식하며 쳐다보더니 핸드폰을 꺼내 '몰래 훔쳐보는 심리' '남자가 좋아할 때 하는 행동' 따위를 검색한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마음에 드는 답이 없었는 지 직접 글을 적기 시작한다.

'옆집 남자가 저를 훔쳐보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하던 성미가 백스페이스를 누르곤 다시 글을 적는다.

'옆집 남자가 이성 친구랑 떠들 때면 불쾌한 티를 내고 제가 뭘 하는지 사사건건 궁금해 해요. 이거 무슨 심리인가요?"

손톱을 뜯으며 답을 기다리는 성미. 나무라는 댓글은 가볍게 넘겨버리곤 마음에 드는 댓글만 드래그까지 쳐가며 읽는다.

'백퍼네ㅋㅋ. 나도 옆집에 예쁜 여자 좀 ~~ㅈㅂ~~'

얼굴에 웃음기가 머금어진 성미는 고개를 돌려 얇은 천을 쳐다본다. 시점 샷으로 벽과 가까워지는 카메라. 그 벽을 넘어가면 (화면전환) 옆집에서 흥분한듯 구멍을 쳐다보고 있는 남성.

S#6 성미의 원룸 내부, 오후

천이 떼어진 벽, 어설프게 깔끔해 진 방. 땀에 젖은 성미가 긴 팔을 천천히 벗는다. 아토피 자국이 서서히 드러나며 민소매 차림이 된 성미. 일부러 자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방을 닦는다. 팔이 간지러운지 긁으려다 가도, 입술을 꽉 깨물고 참는다. 벽 쪽을 청소하는 척, 구멍에 몸을 붙이는 성미. 그리곤 반응이 궁금한 지 몰래 눈을 들이민다. 그러나 옆집 남자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로 폰 게임을 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탄다고 생각한 성미는 귀엽다는 듯이 웃는다.

S#7 번화가 중심, 오후

프릴이 달린 원피스를 입은 성미, 옷 가게 쇼핑백을 들고 번화가 중심을 걷고있다. 살랑거리는 프릴 사이로 피부 질환들이 적나라하게 보인다. 성미는 들뜬 표정이다. 그때 옆을 지나가는 여성, 미세하게 숨을 참는 것이 보인다.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보는 성미. 안 보는 척 하면서도 힐끗 쳐다보고 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수군대는 소리까지 들린다. 성미는 내색하지 않으려다가, 곧 피부를 손으로 가리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친다.

S#8 성미의 원룸 내부, 오후

분에 찬 상태로 돌아온 성미, 다급하게 구멍에 눈을 비집는다. 그러나 옆 집이 까만 물체에 막혀 보이지 않는다. 당황하며 눈을 굴린 성미는 종이를 찢을 만할 것을 찾다가 샤워기를 틀어 씻는 척도 해보고, 앓는 소리를 내보기도 한다. 여전히 막혀 있는 구멍. 감정이 격해진 성미가 벽을 광광 친다. 곧이어 띵동- 울리는 초인종에 화색이 된 성미. 문을 열자, 집 주인이 서있다. 머쓱 해진 성미

성미: 어... 무슨 일이세요?

집주인: 가스 좀 확인하러~

말을 얼버무리며 집 안으로 들어오는 집주인. 벽 쪽을 유심히 보는 모습에, 지우가 몸으로 구멍을 가린다. 지우의 행동을 수상쩍게 본 집주인이 조용히 입을 연다.

집주인: 안 그럴거 아는데~ 옆집 청년이 요즘 누가 쳐다보는거 같다구 막 그래, 괜히 주민끼리 불편한 일 생길까봐 내려와봤지~

성미: ... 전 모르는 일인데 옆집이 예민한 거 아니예요?

심란해 보이던 집주인의 표정이 조금 밝아진다.

집주인: 그치? 내가 옆집한텐 잘 말해볼게 미안해 괜히~

집주인을 올려 보낸 성미. 배신감에 물든 표정으로 거울 속 화장을 하고, 드러난 옷을 입은 자신을 바라본다.

S#9 성미의 원룸 내부, 밤

어두운 방 안, 바닥에는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벽에 붙은 야광 별 스티커가 반짝인다. 매트리스에 납작하게 엎드려 누워있는 지우. 고개를 벽쪽에 찰싹 붙인 채로 벽의 구멍을 파헤치더니, 코를 가져다대고 숨을 크게 들이쉰다. 샷사이즈 넓어지며 벽에 잔뜩 찍힌 구멍들이 다다닥 보인다. 후- 숨 내뱉는 소리와 블랙아웃.
귀엽다는 듯이 웃는다.

S#7 번화가 중심, 오후

프릴이 달린 원피스를 입은 성미, 옷 가게 쇼핑백을 들고 번화가 중심을 걷고있다. 살랑거리는 프릴 사이로 피부 질환들이 적나라하게 보인다. 성미는 들뜬 표정이다. 그때 옆을 지나가는 여성, 미세하게 숨을 참는 것이 보인다.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보는 성미. 안 보는 척 하면서도 힐끗 쳐다보고 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수군대는 소리까지 들린다. 성미는 내색하지 않으려다가, 곧 피부를 손으로 가리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친다.

S#8 성미의 원룸 내부, 오후

분에 찬 상태로 돌아온 성미, 다급하게 구멍에 눈을 비집는다. 그러나 옆 집이 까만 물체에 막혀 보이지 않는다. 당황하며 눈을 굴린 성미는 종이를 찢을 만할 것을 찾다가 샤워기를 틀어 씻는 척도 해보고, 앓는 소리를 내보기도 한다. 여전히 막혀 있는 구멍. 감정이 격해진 성미가 벽을 광광 친다. 곧이어 띵동- 울리는 초인종에 화색이 된 성미. 문을 열자, 집 주인이 서있다. 머쓱 해진 성미

성미: 어... 무슨 일이세요?

집주인: 가스 좀 확인하러~

말을 얼버무리며 집 안으로 들어오는 집주인. 벽 쪽을 유심히 보는 모습에, 성미가 몸으로 구멍을 가린다. 성미의

행동을 수상쩍게 본 집주인이 조용히 입을 연다.

집주인: 안 그럴거 아는데~ 옆집 청년이 요즘 누가 쳐다보는거 같다구 막 그래, 괜히 주민끼리 불편한 일 생길까봐 내려와봤지~

성미: ... 전 모르는 일인데 옆집이 예민한 거 아니예요?

심란해 보이던 집주인의 표정이 조금 밝아진다.

집주인: 그치? 내가 옆집한텐 잘 말해볼게 미안해 괜히~

집주인을 올려 보낸 성미. 배신감에 물든 표정으로 거울 속 화장을 하고, 드러난 옷을 입은 자신을 바라본다.

S#9 성미의 원룸 내부, 밤

어두운 방 안, 바닥에는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벽에 붙은 야광 별 스티커가 반짝인다. 매트리스에 납작하게 엎드려 누워있는 성미. 고개를 벽쪽에 찰싹 붙인 채로 벽의 구멍을 파헤치더니, 코를 가져다대고 숨을 크게 들이쉰다. 샷사이즈 넓어지며 벽에 잔뜩 찍힌 구멍들이 다다닥 보인다. 후- 숨 내뱉는 소리와 블랙아웃.